

낭만과 정감 넘치는 '글동네 뒷이야기'

문단야사에서 요절문인 추모집까지 다양하게 선봬

얼마전 소설가 윤희영씨의 결혼식이 문단의 화제로 떠오른 적이 있다. 한사람의 결혼식이, 그 주인공의 지명도 때문에 남다른 조명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문학작품이 작가의 실제 체험을 일정부분 담보한다는 전제를 굳이 들춰내지 않더라도, 글쓰기와 병행되는 작가의 삶 자체가 지닌 상징성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적합할 것이다. 또한 그 결혼식을 다룬 신문기사가 하나의 가십거리로 머물지 않고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도, 그것이 단순히 문단내적 얘기거리의 차원을 넘어 일반인들이 문학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셋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흔히 '문단야사'로 불리는 일련의 이야기보따리는 일단 읽는 재미를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독자들은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문학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빚어내는 갖가지 일화 속에서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어떤 치열함을 읽어내게 된다. 나아가 당대의 사회상까지 미루어 짐작케 하는 독특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들 문단야사가 지닌 의미는 가볍지 않다.

기자체험 바탕한 문단이야기

요즘도 꾸준히 몇몇 일간지에 회고형식으로 연재되고 있는 문단이야기 말고도, 그동안 출간된 이 방면의 책들로는 樹州 변영로의 「醜醜40년」이나 旻涯 양주동의 「文酒半生記」, 그리고 고은의 「1950년대」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책들은 지금 세대들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훨씬 '맹목적으로' 문학에 몰입했던,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반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에서 다소 일탈한 듯한 문인들의 전형으로 인식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최근 출간된 책들은 단순한 삽화식 이야기 모음에서 탈피해, 다소 건조하나 지난 세대이건 동세대이건 현재의 시점에서 그것들이 갖는 의미를 나름대로 부각시키고 있어 이전 책들과는 변별점을 갖는다.

오랜 문학 담당기자로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엮여낸 「글동네 사람들」(정규용, 작가정신)과 「문단주유기」(신동한, 해돋이)는 두사람 모두 문학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글동네 사람들」은 1969년부터 몸담기 시작한 20여년에 걸친 문학담당기자 시절을 정리하는, 개인적으로서도 의미 깊은 작업임을 밝히고 있는 정규용씨(현 「중앙경제신문」 편집국장 대리)가 그간 써온 다양한 형식의 문화관



흔히 '문단야사'로 불리는 일련의 책들은 일단 읽는 재미를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순한 '기사낙수'적인 성격에서 탈피해 문학 혹은 예술이라는 작업을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와 그 속에서 치열하게 나름의 삶을 키워가는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드러내준다.

런 글들을 모은 책이다. '문학·문단·문인'이라는 주제가 함축하고 있듯 이 책에는 한국 문학과 문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 무게 있는 글들을 비롯해서 선우휘·서기원·이호철·최인호씨 등과의 대담기사, 그리고 김주영·김원일·조선작씨 등에 대한 '작가소묘'가 저자와의 개인적 교우기 형식으로 정감 있게 묘사돼 있다. 이밖에도 80년대 필화사건의 주인공인 한수산씨와 이 사건에 얽힌 일화들을 공개, 관심을 모은다.

정규용씨는 평론가·비평가의 글들과는 달리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씌여진 글들은 당대적 의미밖에 지니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체계화된 문학 저널리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단주유기」는 제목 그대로 술과 관련된 문단주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해방을 전후한 시기부터 80년대까지 40여년에 이르는 문단사의 풍성한 뒷얘기를 그리고 있는 이 책은 술로 비롯된 낭만적 풍토가 많이 사라진 요

즘 문단에 대한 저자의 아쉬움이 곳곳에 배어 있기도 하다.

술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술주전자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았다는 김관식, 술먹고 노숙하다 부랑자숙소로 끌려가 행방불명되자 동료시인들이 유고시집을 만들었던 천상병씨의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이밖에도 당시 문단의 주객들 가운데서도 '술꾼'으로 이름난 조지훈·김수영·신동엽·박봉우씨를 비롯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며 술을 마시기 때문에 술집주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던 홍성유씨, 그리고 당시 재기 있는 젊은 평론가로 부상하던 김현씨 등 평론가들과 어울려 술자리에서 썼던 문학기사 이야기들이 호기롭게 묘사돼 있다.

텔런트 최불암씨의 어머니가 60년대 명동에서 경영하던 '은성'과 70년대 청진동의 맥주집 '왕좌', 시인 권일송씨가 직접 운영하던 '흑산도' 등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 문인들이 자주 찾던 술집풍경도 등장한다. 한편 정초가 되면 원로문인인 박종화, 김동리씨 맥에 모여 세배술을 마시던 일 등 훈훈한 정담도 전하고 있다.

요절문인 조명한 책도 관심 끌며

흔히 '요절했다'고 표현되는 예술가들의 초상을 그린 책들도 관심을 모은다. 「우리시대 요절시인」(삼인행), 「불꽃처럼 살다 간 예술가의 초상」(도서출판진화)이 그것으로, 최근 거의 동시에 나란히 출간된 이 책들은 단편적인 에피소드를 모은 야사라기 보다는 자칫 잡다한

신화 속에 묻혀버릴 수도 있는 이들의 생전의 모습을 반추하면서 올바른 자리 매김을 시도하는 추모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시대 요절시인」은 최근 몇년 사이 잇달아 맞은 박정만·기형도·고정희씨의 죽음으로 부쩍 관심이 높아진 동시대의 요절시인들의 면면을 한자리에 모은 책이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음독자살한 김만옥, 김포들판에서 객사한 송유하, 백혈병으로 죽은 이경록, 면목동 다리에서 실족사한 임홍제, 심야극장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기형도, 그리고 최근 지리산 등반 중 급류에 휩쓸려 추락사한 고정희씨 등 시인 8명의 생애를 평소 가까이 지내던 문우들이 다시 정리하면서 회고하는 글들과 함께 이들의 대표시도 수록돼 있다.

요절시인들의 행태와 시분석을 통해 자살의 경우는 물론 황사에서조차 신비한 타나토스(죽고 싶다는 열망)가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시인 김승희씨의 독특한 산문이 이채롭다.

「불꽃처럼 살다 간 예술가들의 초상」은 문인들 뿐만 아니라 익히 알려진 '우리시대의 예술가' 15명에 얽힌 이야기들이 수록돼 있다.

문학평론가 김현, 시인 채광석, 극작가 이은성, 화가 오윤과 최옥경, 영화감독 하길중, 연극배우 추송웅, 가수 김현식씨 등 치열한 창조작업에 몰입했던 이들의 삶이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회고형식으로 엮여져 있다. 이와함께 시인 오규원·김정환·하계봉·정호승·정희승·김규동씨 등의 헌시도 수록돼 있어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을 남기고 있다.

문학이해의 한 방법 될수도

최근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이들 회고기류들은 대부분 문단, 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기도 하지만, 앞서 예로 든 이전 세대의 책들이 지녔던 '기사낙수'적인 성격에서 탈피, 문학 혹은 예술이라는 작업을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와 그 속에서 나름의 삶을 키워가는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일정부분 드러내 주고 있어 단순한 '사담'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개의 창작물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것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할 때, 비록 단편적이긴 하나 이들 책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좋은 참고자료가 될 듯하다.

— 정소연 기자